

2. 통화정책

〈글로벌동향〉

- ◆ 미 연준이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여 지급준비율을 인하

〈국내동향〉

- ◆ 한국은행은 11월 기준금리를 1.75%로 인상하였으며, 내년 하반기중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

가. 글로벌동향

□ 미 연준은 2018년 9월 25~26일 FOMC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25bp(2.00~2.25%) 인상

- 9월 FOMC에서 노동시장의 호조세와 경제활동의 강한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, 통화정책 기조를 ‘완화적으로 유지’한다는 내용을 삭제
 - 11월 FOMC(7~8일)에서는 정책결정문 내용에 큰 변화 없이 정책금리 또한 현 수준에서 동결
- 정책금리 전망은 2018년말, 2019년말 및 2020년말 각각 2.4%(4회), 3.1%(3회) 및 3.4%(1회)로 종전 수준이 유지되고, 새로 공개된 2021년말의 경우 3.4%(0회)로 나타남

FOMC 정책금리 전망

(단위: %)

	2018년말	2019년말	2020년말	2021년말	장기
2018년 9월	2.375	3.125	3.375	3.375	3.0
2018년 6월	2.375	3.125	3.375	-	2.875

주 : Median 기준

자료: FRB

□ 유럽중앙은행은 2018년 9월 및 10월 정례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양적완화를 종료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

- 기준금리(0.0%) 및 예치금리(-0.4%), 한계대출금리(0.25%) 등 주요 정책금리는 2019년 여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며, 자산매입 규모는 10월부터 150억유로로 축소하여 시행한 후 12월말 양적완화를 종료

□ 일본은행은 2018년 9월 및 10월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장·단기 금리와 자산매입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, 장기국채 등 자산매입 규모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

- 단기금리 -0.1% 및 장기금리 0% 내외에서 국채수익률곡선을 관리하는 가운데 경제 및 물가 상황에 따라 금리의 상하변동을 어느 정도 허용
- 장기국채 보유잔액은 연간 약 80조엔씩 증가시키고 ETF 및 REIT 보유잔액의 연간 증가액 또한 각각 6조엔, 900억엔으로 유지하되, 매입규모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

□ 중국인민은행은 2018년 10월 7일 대형상업은행, 주식제상업은행, 도시상업은행, 외자 은행 및 농촌상업은행의 위안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 1%p 인하를 발표

- 이번 기준을 인하는 지난 1월, 4월 및 6월에 이은 금년중 네 번째 인하
 - 미·중 무역분쟁 심화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

중국 은행 기준율 현황

(단위: %)

	대형상업은행	중소형상업은행	농촌상업은행
기존	15.5	13.5	11.0
10월 15일 이후	14.5	12.5	10.0

주 : 1) 기준을 하단은 금융포용조건 충족 시 기준을 추가 인하분 제외

2) 주식제상업은행, 도시상업은행 및 외자은행은 지급준비율 상 중소기업상업은행에 해당

자료: 한국은행 북경사무소

나. 국내동향

-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30일 기준금리를 1.50%에서 1.75%로 상향 조정
-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가적인 인상 없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 하반기에 들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혼재

기준금리 수준별 예상기관 수(2018년 12월 기준)

(단위: 개사)

기준금리	2019년 1/4분기	2019년 2/4분기	2019년 3/4분기	2019년 4/4분기
1.75	25	22	17	13
2.00	1	4	8	10
2.25	0	0	1	3
전체	26	26	26	26

자료: Bloomberg, 인포맥스

연구위원 강현주 (02-3771-0850, hjkang326@kcmi.re.kr)

연구원 장효미 (02-3771-0872, janghm@kcmi.re.kr)